

1. 세계 석유시장의 구조적 특성

가. 공급경로상의 애로
세계전체의 주요에너지 자원의 확인매장량은 <표 1>에서 보는 바와같이 석유 697십

이다. 이 지역적 편재에 대하여서 에너지원간의 단기적인 대체능력이 낮다.

결국, 에너지 문제의 핵심은 공급물량의 절대적인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경로상에 존재하는 애로우인한 가격의

특별기획

제6차 에너지자원부문 계획수정을 위한 정책자료 ①

석유산업 발전 전략

국내 석유소비는 1979년을 정점으로 '80년에서 '82년까지 감소하였고 '83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가정·상업부문은 연료고급화 추세와 최근에 계속된 석유제품가격 인하로 6차 계획기간동안 년평균 17.4%의 높은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제품별로는 취사용 LPG의 중앙난방용 B-C유가 높은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다.

억배럴, 천연가스 3,626조 입방피트, 석탄 1,018십억톤으로서 가채연수는 각각 35년, 57년, 226년 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확인매장량 기준으로 향후 200여년간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에너지 자원의 물량적인 고갈(physical exhaustion)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에 [그림 1]은 석유자원의 지역적인 편재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매장량이 100억배럴 이상이면서 가채연수가 30년이상인 국가는 멕시코와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OPEC 회원국들

불안에 있다. 즉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문제는 물량적인 고갈(physical exhaustion)이 아니라 경제적인 고갈(economic exhaustion)이다.

나. 국제유가의 불안정……
광물자원의 고갈에 관한 재조명

1970년대의 세계적인 석유 파동을 경험한 이후로 화석연료의 물량적인 고갈에 관한 염려가 고조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국제유가는 상승하리라는 견해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석유를 포함하는 광물자원은 근본적으로 고갈성 자원(exhaustible resource)이

이 자료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에너지자원부문 계획 수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발췌, 게재한 것이다.
(편집자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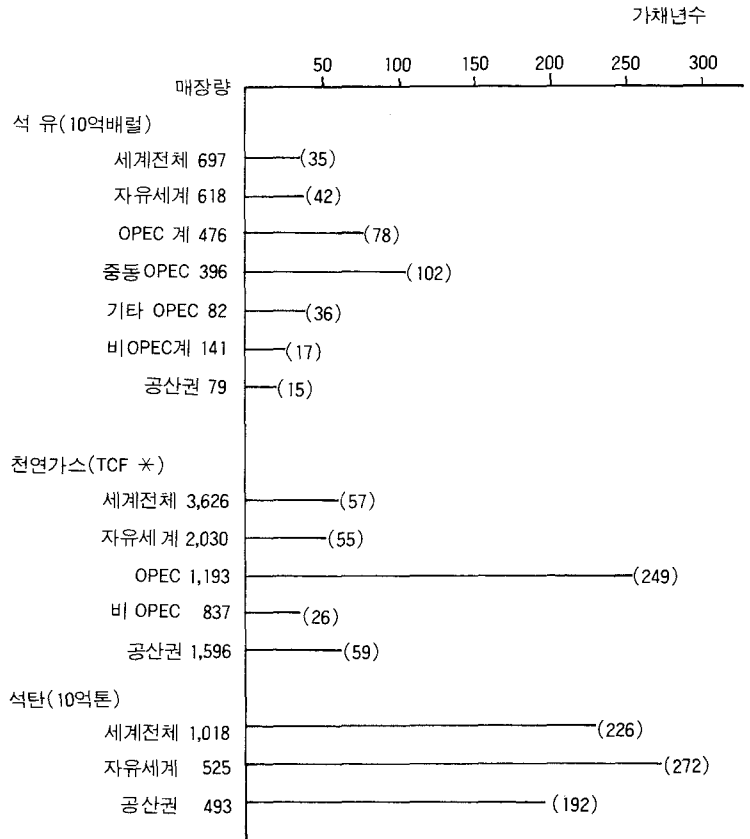
아니다.

즉 “지구크기 그 자체의 한계성”으로 인한 궁극부존량(ultimate resource)의 유한성이 자원생산활동의 제약이 되지 못한다. 지구상의 마지막 광체(ore body)에 탐사의 발길이 닿기전에 상승하는 공급비용(탐사비+개발비+생산비+수송비+사용비)으로 인하여 해당 광물자원의 공급은 중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갈성자원”은 공허한 개념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 즉 상승하는 비용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유가는 공급의 제단계 즉 탐사(exploration), 개발(development), 생산(production), 수송(transportation), 그리고 사용(consumption)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체감하는 수익(diminishing returns)과 이 제단계 및 석유수요(소비절약 및 대체재의 개발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음)에 있어서의 인간의 지혜(즉 기술개발)와의 대결관계의 산물로서 그 방향이 결정되며 따라서 매우 불확실하다. 이 경쟁관계에서 대개의 경우 승자는 인간의 지혜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수평적 협력(horizontal, international coordination) 세계 석유시장의 또 다른 구조적 특성은 수직적인 통합관계와 수평적·국제적인 협력관계이며 1970년대초 이전의 특징이었다.

〈표 1〉 세계 에너지자원의 부존현황



〈註〉 * TCF=조입방피트(兆立方피트)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의 에너지 미래(요약)」, 1987. 8.

세계석유시장의 본래적인 불안정을 전제로 할 경우,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 석유제품의 수요전망과 공급계획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가격안정, 그리고 이윤센터의 상·하류 부문간의 이동을 통한 이윤증대를 위하여 수직적인 통합관계의 구축이 불가피하다.

석유제품은 연산품(joint products), 좀 더 구체적으로 병산품(coproducts)이며, 석유제품의 수요는 지역적으로 상이하고 동일지역에 있어서도 계절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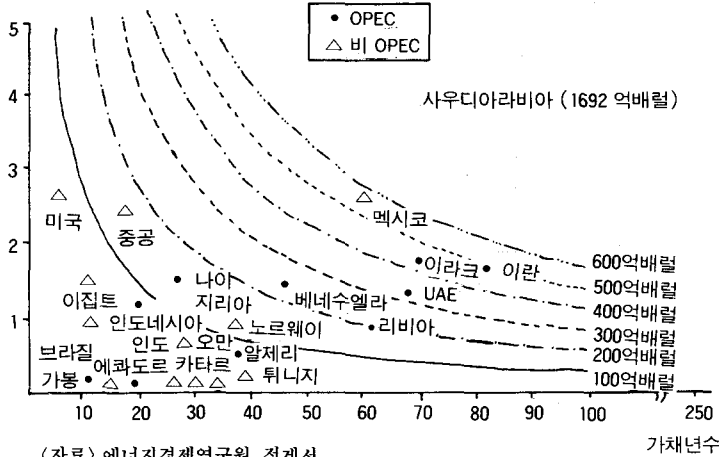
정유시설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반규격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정교한 장치(예:cracking, reforming, 탈황장치등)를 포함하는 자본집약적인 설비로서 고정비 부담이 매우 크며, 따라서 일정수준의 가동을 유지가 필요하다.

이 결과, 균형있는 제품수율의 유지, 변화하는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그리고 규모이익의 향유를 위하여 수평적·국제적인 연합관계의 구축이 요망되며 이 연합관계를

특별기획

[그림 1] 석유자원의 지역별 분포현황

생산량 미국 소련
MMBD (246 억배럴) (590 억배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전제서

통하여 지역간의 석유제품 수급평형이 이루어지고 가격의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초의 산유국에 의한 석유생산권의 국유화는 종래의 수직적 통합관계를 파괴하였으며, 이후의 점증하는 비 OPEC 산유국들의 시장영향력은 산유국들간의 국제적인 수평적 협력관계를 크게 약화시켰다. 이 결과 상·하류부문간의 수급연계관계가 단절되고 지역간의 수급균형이 상실되었으며 따라서 석유시장 본래적인 불안정이 표출된다. 이에 더하여서 현물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영향력이 증대하여 “꼬리가 개를 흔드는” 상태에 이르렀고 시장불안은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시장불안에 직면하여, 석유수출을 통한 재정수익이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사우디 등 산유국들은 안정적인 석유 판매수입을 위하여 하류

부문에로의 진출을 통한 수직적통합관계의 재구축을 기도함이 수직관계의 재구축은 세계석유시장에 안정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이 시장안정을 위하여는 수직적인 통합관계에 더하여서 수평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OPEC과 비OPEC 산유국들

사이에는 물론이려니와 OPEC 산유국들 사이에도 협력관계의 구축이 곤란하다. 따라서 세계석유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전망이다.

2. 국내 석유수급 추이 및 전망

가. 석유소비 추이

1970년대에는 정부에 의한 석유의 주에너지원화와 경제 성장에 힘입어 총에너지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소비절약 시책의 추진과 탈석유전원개발 등 일련의 석유의존도 각종 정책이 결실을 보여 석유의 비중은 1987년 44.0%로 감소하였다.

국내 석유소비는 1979년을 정점으로 1980년에서 1982년까지 감소하였으며 1983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석유소비 증가추세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수송물동량과 차량

<표 2> 총 에너지중 석유비중 추이

(단위: 석유환산 천톤)

	1971	1975	1978	1981	1984	1987
총 에너지	20,868	27,553	38,088	45,718	53,319	67,419
석유	10,559	15,637	24,123	25,580	27,629	29,653
석유비중(%)	50.6	56.8	63.3	58.1	51.8	44.0

<표 3> 석유제품별 소비 추이

(단위: 천배럴)

	1979	1982	1985	1986	1987	1983-87 연평균 증가율(%)
총 계	183,871	178,893	189,891	200,591	210,510	3.3
에너지유	158,893	149,276	145,488	149,999	154,367	0.7
중·경질제품	59,439	58,003	73,646	82,103	91,128	9.5
중질제품	99,454	91,273	71,842	67,896	63,239	△7.1
가스(LPG)	3,331	7,224	14,247	17,585	21,216	24.0
비에너지유	21,647	22,394	29,456	33,007	34,927	9.3
나프타	19,229	19,871	26,164	29,672	31,613	9.7
기타	2,418	2,523	3,292	3,335	3,314	5.6

대수 증가, 가정·상업부문의 가스사용 증가등을 들 수 있다.

석유제품별 소비추이를 보면 수송부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Jet유등 중·경질제품 소비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인 나프타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석유의존도 감축정책으로 산업 및 발전 부문 연료인 B-C유 중심의 중질제품 소비는 급격히 감소되어, 중질제품의 공급과잉이 석유수급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나. 석유공급 추이

원유도입 지역은 1970년대에는 OPEC, 특히 중동지역 회원국들에 의존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선다변화 정책으로 OPEC와 중동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최근 들어 중동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 석유시장의 안정과 더불어 중동 대비 추가운송비 지원을 도입국가의 매장량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유도입의 형태별 추이를 보면 제2차 석유파동 이전까지는 전량을 장기계약에 의존하였으나, 국제 석유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현물시장의 도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1986년에 현물시장의 도입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OPEC의 시장점유율 확보정책에 따른 원유가 급락으로 정유사들이 현물시장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이다.

원유정제능력은 1980년대

초까지 크게 증대되어 왔으나, 석유수요의 감소에 따라 정제 시설 가동율은 1970년대 거의 90% 이던 것이 1982년에는 60% 수준까지 저하되었다. 그 후 임가공 원유처리량의 증대로 1987년에는 73% 정도가 되었지만 적정 가동율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석유수요전망

국내 석유수요는 6차계획기간중 연평균 8.4%씩 증가하여 1991년에는 299,700천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기간중의 총에너지 수요 증가율인 6.7%를 상회하는 것이며, 이에따라 총에너지중 석유의존도는 1987년의 44%에서

<표 4> 원유도입의 OPEC 및 중동의존도

(단위:%)

	1978	1982	1984	1985	1986	1987
OPEC	100.0	95.9	73.5	66.6	67.7	67.1
중 동	100.0	76.0	66.5	57.0	60.5	64.1

<표 5> 도입형태별 원유도입 구성비

(단위:%)

	1981	1983	1984	1985	1986	1987
장기 계약	97.4	80.4	68.4	57.1	39.4	44.7
G-G	33.5	10.4	5.9	0.5	-	-
D-D	28.1	56.6	53.4	51.1	38.4	36.7
Major	35.8	13.4	9.0	5.5	1.0	8.0
기 타	2.6	19.6	31.6	42.9	60.6	55.3
현 물	2.6	6.5	17.6	25.6	42.4	38.8
임 가 공	-	13.1	14.0	17.3	18.2	16.5

<표 6> 정제능력과 가동율

	1976	1979	1982	1985	1986	1987
정제 능력 (천 BPSD)	440	580	790	790	790	790
가동율(%)	86.2 (86.2)	86.4 (86.4)	60.0 (56.6)	69.7 (58.9)	72.7 (59.1)	73.2 (60.4)

<표 7> 경 중질제품의 생산비율 변화

(단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경질 제품	48.2	50.1	53.3	57.6	58.0	58.4
중질 제품	48.9	46.7	43.5	38.8	37.3	36.3
가 스 류	2.9	3.2	4.2	4.6	4.7	5.3

석유제품별 생산은 소비의 경질화 현상에 맞추어 경질제품 생산비율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정제시설의 개체보다는 주로 경질제품의 수율이 높은 경질원유의 투입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1981년에는 50%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산업부문의 석유수요는 간접가열용 보일러의 유연탄 사용 증가와 저에너지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으로 타 부문에 비해 낮은 수요증가율을 보일 것

특별기획

〈표 8〉 부문별 석유수요전망

(단위:천배럴)

	1986	1987	1991	연평균증가율(%) 1987-91(1988-91)
합 계	200,591 (100.0)	210,506 (100.0)	299,700 (100.0)	8.4(9.2)
산 업	83,898 (41.8)	90,866 (43.2)	109,945 (36.7)	5.6(4.9)
수 송	54,664 (27.3)	65,644 (31.2)	84,695 (28.3)	9.2(6.6)
가 정 상 업	28,040 (14.0)	32,623 (15.5)	62,646 (20.9)	17.4(17.7)
공 공 기 타	13,671 (6.8)	13,783 (6.5)	16,322 (5.4)	3.6(4.3)
발 전	20,336 (10.1)	7,591 (3.6)	26,093 (8.7)	5.1(36.2)

〈표 9〉 제품별 석유수요전망

(단위:천배럴)

	1986	1987	1991	연평균증가율(%) 1987-91(1988-91)
합 계	200,591	210,506	299,700	8.4(9.2)
휘 발 유	8,557	10,353	15,790	13.0(11.1)
등 유	7,985	8,156	8,859	2.1(2.1)
경 유	57,138	63,536	86,208	8.6(7.9)
B - C 유	64,792	59,579	93,479	7.6(11.9)
Jet 유	8,422	9,082	11,895	7.1(7.0)
L P G	17,586	21,216	32,318	12.9(11.1)
나 프 타	29,671	31,613	41,069	6.7(6.8)
기 타	6,440	6,979	10,082	9.4(9.6)

으로 전망된다.

수송부문의 석유수요는 6차 계획기간중 연평균 9.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자가용승용차 급증으로 휘발유 수요는 이 기간동안 연평균 14.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산업부문은 연료고급화 추세와 최근에 계속된 석유 제품가격 인하로 6차 계획기간동안 연평균 17.4%의 높은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제품별로는 취사용 LPG와 중앙난방용 B-C유가 높은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다.

1987년에 크게 감소되었던 발전부문의 석유수요는 민수용 LNG수요 증가에 따른 LNG 발전의 감소를 반영하여 큰 폭의 수요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발전부문에서의 B-C유 수요증가로 중질제품의 과잉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3. 석유산업 정책방향

가. 효율적인 석유공급체계의 구축

전술한 바와같이 세계 석유 시장에서의 유가는 향후 상·하 양방향으로 불안정할 것으로

예견되며, 국내 에너지시장에서는 석유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고 석유제품 수요의 경질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의 변동을 최대한 흡수함으로써 이 변동이 국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내유가를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의존도가 증가하는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하며, 변화하는 석유제품의 수요를 최소의 비용으로 충족시키는 저가·안정적인 즉 효율적인 석유공급체계의 구축이 요망된다.

나.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석유산업의 전부문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정유부문 중심의 현행 정부규제는 이 부문으로 하여금 손실 담당부문(loss leader)이 되게 하여 비용절감 노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최고판매가격의 고시와 이윤통제는 정유회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평균비용 중심의 가격통제는 평균비용의 증가와 함께 어느 한 회사의 비용증감이 타사의 이윤증감을 초래하는 외부효과가 있다.

전국균일 수송비의 책정은 지역적인 시장세분화(geographical market segmentation) 현

상을 초래하여 시장의 경쟁도를 저하시킨다.

과도한 정부의 제세·공과금도 정유사의 효율적인 경영 노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산업화를 도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강력한 동기를 시장참여자에게 부여한다.

그리하여 강력한 산업기반을 구축,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며 경쟁의 이익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다. 위기대응능력의 제고

세계석유시장의 구조적 특성, 즉 석유자원의 부존이 정치적·군사적으로 불안한 지역에 편중된 점, 수송경로상의 애로, 산유국들간에는 물론 석유수입국가에도 국제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점, 이에 더하여 현물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영향력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경로상의 장애요인 발생가능성과 함께 이로 인한 국제유가의 급등가능성은 상존한다. 따라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요망된다.

4. 향후 추진 정책과제

가. 효율적인 공급체계의 구축

국내의 유전개발사업에의 국내회사 참여는 상·하류부문간의 수직적 통합관계의 구

축을 통하여 에너지의 장·단기 공급계획과 수요전망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수급의 안전에 기여한다.

이 수직적인 통합관계는 국제유가의 변동을 상·하류부문간에 분산 흡수함으로써 이 변동이 국내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내사의 이윤센터를 양 부문간에 이동시킴으로써 국제유가의 변동이 회사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투자위험의 극소화를 위하여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 개발, 탐사의 순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제적으로 대석유회사나 대자본가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진출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90년대 후기부터는 OPEC 회원국 중에서 중동국가 및 리비아, 베네수엘라와 비 OPEC 국가중에는 멕시코, 노르웨이 등만이 수출여력을 갖게 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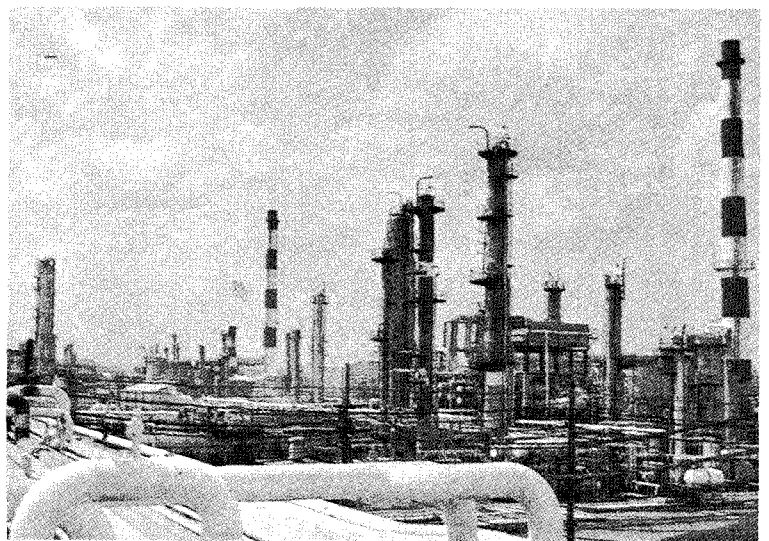
선진공업국의 석유생산 능력은 점차 감소되어 원유구매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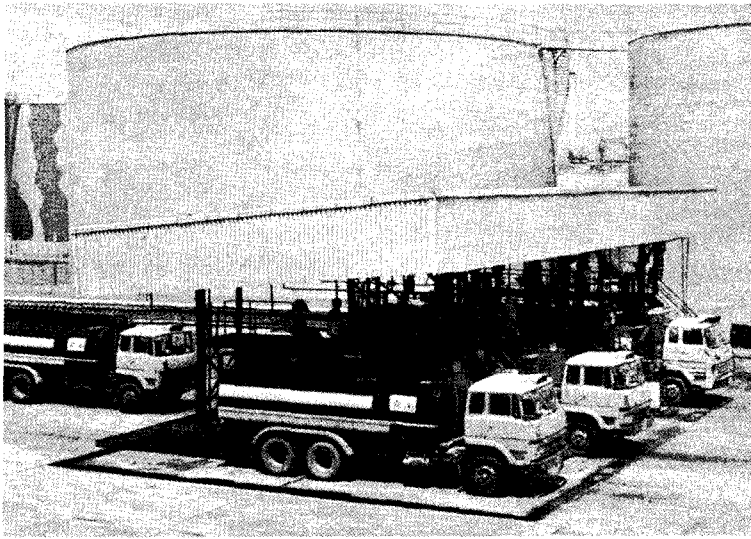
따라서 단순한 도입국가수의 증가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일정 수준의 기저(base) 도입선을 확보하여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도입선 다변화의 일환으로서 자원이 풍부하고 거리가 가까운 중공과 소련(극동지역)으로부터의 원유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원유도입은 장기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시장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원유도입의 경제성을 제고시키며, 장기계약에 의한 도입도 가능한 한 저렴한 현물가와 연동시킴으로써 저가 안정도입을 기하도록 한다.

석유제품 수요의 경질화에 따른 제품간의 수급불평형은 단기적으로는 경질원유의 투입, 수요구조 변화속도의 완화,





제품의 수출입 등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분해시설의 설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경우 중질유 분해시설과 탈황장치에 대한 과잉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석유제품 수급구조의 변화추이에 맞추어 적정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정유사간에 투자계획을 상호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제시설의 고도화 및 적정규모의 유지를 위하여는 국내 제품수급 상황에 적합한 관련 기술, 예로서 중질유 분해기술, 코크스등 부생 저질 잔사유의 이용기술, 에너지 절약기술, 그리고 공정부산물의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 중질유 분해시설은 석유제품의 연산성(병산성)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변화하는(계절적, 기간적) 제품 수요구조에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급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며, 동시에 정유시설에의 투입원유의 품질범위를 넓혀서 정유사의 원유선택의 여지를 넓혀주고 경질제품의 생산수율을 높임으로써 정유사의 이윤증대에도 기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석유제품 수요의 경질화 현상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질제품에 대한 수요는 주로 대도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형성될 전망이다.

이에 반하여 정유공장은 경질제품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

은 지역(울산, 온산, 여수 등)에 편재함으로써 지역간의 제품 수급불평형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석유제품의 원거리 수송이 절실히 요청된다.

원거리 수송수단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단인 송유관은 그 건설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국가의 재정지원 능력 및 수요구조의 변화추이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건설함이 바람직하다.

이 장거리 송유관의 설치는 가장 저렴한 장거리 수송수단으로서 제품의 저가 및 안정적인 공급에 크게 기여한다.

다연료 연소장치는 연료 소비자에게 연료선택의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며, 동시에 연료간의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보다 값싼 연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로서 미국 산업부문에 있어서 이중연료 연소장치(dual-fired boiler)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산업부문의 평균구입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구입한다.(산업부문의 연료구매자들이 타부문의 구매자들보다 연료 구입가격이 낮은 것이 보통임).

정부에 의한 국내유가의 통제가 해제될 경우, 국내 석유산업의 불안한 국제 석유시장에의 노출도는 증가하게 되며

석유제품 수요의 경질화 현상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질제품에 대한 수요는 주로 대도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형성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경제적인 비축과 선물시장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 경우 경제적인 비축은 정부책임하에 운영되는 공공재 성격의 전략비축과는 구분되어야 함. 선물시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유회사 및 관련회사들에 의한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하다.

환경오염, 특히 대기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저류황유 및 무연휘발유의 생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은 오염물질 방출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깨끗한 환경에 대한 수요곡선인 한계 피해곡선 (marginal damage curve)과 공급곡선인 한계 통제비용곡선 (marginal control cost curve)의 도출이 매우 어렵고 따라서 극히 불확실하다.

한계피해곡선이 매우 비탄력적일 경우, 즉 공해가 심할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오염원에 부과하는 세금(tax)보다 한계피해곡선의 불확실성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반면에 한계피해곡선이 탄력적일 경우, 즉 공해문제가 별로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이 규제보다 동일한 의미에서 효율적이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세분화



해서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규제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동일지역에 있어서도 환경오염의 심각도가 완화됨에 따라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대한 규제로부터 오염원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나.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

현행 유가관리제도는 제반 규제 조치로 인하여 국내 석유회사들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함으로써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규제의 해제가 필요하며 급격한 해제시 막대한 사회적 조정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단

계적인 해제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단계적인 규제 해제 방안

1단계: ● 환율연동제

- 국내 유가구조의 국제화 구조에로의 접근 및 석유 관련 세제 개편

2단계: ● 국제유가 연동제

- (국제제품 가격을 국제시장 제품가격 또는 원유가에 연동시킴)

3단계: ● 유가규제의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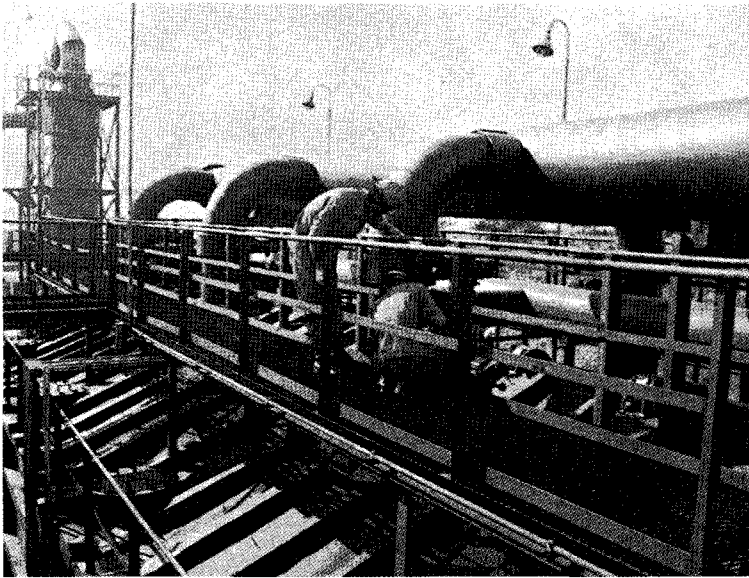
- (국내유가의 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김)

○ 제반투자에 관한 규제 완화

— 정유업

현행 유가관리제도는 제반 규제조치로 인하여 국내 석유회사들이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함으로써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규제의 해제가 필요하고 단계적인 대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별기획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제한적인 행위 내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참입방어벽(entry barrier)을 구축한다든지, 제품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타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시장에서 축출하고자 하는 행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배타 조건부 거래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있게하고 그 경쟁의 이익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 점진적으로 신규참입 제한요인 제거

1단계: 시설개조 허가제 폐지

2단계: 중설 허가제 폐지
(전제 - 국내유가의 국제수준 유지)

3단계: 신규참여 자율화

— 석유 유통업

- Pole Sign제 도입
- 대리점 및 주유소의 허가 기준 설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유통부문 참여제한의 점진적 완화

○ 석유수출입에 관한 규제의

완화

— 단계적 규제해제

1단계: • 임가공원유 및 현물원유 도입 승인제 폐지

• 분기별 수입계획 및 신고제 폐지

2단계: • 수출추천제 폐지

• 원유도입 승인제 폐지

3단계: • 수입수천제 폐지

— 규제해제 선행필요조치

- 정부 비축량 증대
- 수출입자에 대한 자격요건 부여
- “소비지에서의 정제”에 대한 수정 보완

다. 위기 대응능력의 제고

국제 석유시장에서 중대한 공급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는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서 비상시 석유 수요 감축방안의 수립, 연료 전환능력의 제고, 비상시 정유 시설의 운전계획의 수립, 석유 제품 수송방안, 그리고 정부의 전략비축 운영이 있음. 또한 국제기구(IEA, PECC 등)를 통하여 타 수입국들과의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요 산유국들과의 외교 및 경제 협력을 통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있게하고 그 행위의 이익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제 석유시장의 중대한 공급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고 국제기구를 통하여 타 수입국들과의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